

광주·전남지역 고액·상습체납자 “꼼짝마”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 56억원 등 262명 내년 전국세무서 체납징세과 신설해 추적 5천만원이상 체납자 타인명의재산 조회도

국세청이 4일 발표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법인 2,099개 업체) 중 광주·전남에서는 262명(개인 175명,법인 87개업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

서 계시판을 통해 ‘2019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원,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원 이상 체납자다. 광주 개인 고액·상습체납자는 91명(1.9%)으로 체납액은 521억원(1.3%)이였으며, 전남은 84명(1.8%), 체납액은 678억원(1.8%)으로 나타났다. 광주 법인 고액·상습체납자는 41명(2.0%), 체납액은 346억원, 전남은 46명(2.2%), 체납액은 342억원(2.2%)으로 집계됐다.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2,500만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

원),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 황효진 전 스페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원) 등이 이름이 알려진 경영자들도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구암 허준’, ‘아이리스’ 등 다수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한 방송작가 최완규씨도 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로 공개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 전체 체납액은 1,633억원 많다. 국세청은 이런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세무서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는다. 아울러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 부터 친인척 명의의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미애 기자

경제 프리즘

이마트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이마트는 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141개 점포와 이마트몰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예약판매 기간 행사카드로 인기 세트를 구매하면 제품을 최대 40% 할인한다. 또 구매금액대별로 최대 15%에 해당하는 신세계상품권을 준다. 첫 30일 동안은 최대 150만원권, 이후 10일간은 최대 100만원권을 주는 등 ‘얼리버드’ 구매자에게 더 많은 상품권을 준다. 이마트 관계자는 “‘얼리버드’ 기간을 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법인고객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추석 명절 사전예약 판매 때 매출의 53%를 차지한 통조림·조미료의 경우 기획 물량을 지난해보다 10%가량 늘렸다. 횡성 1++등급 한우, 흑한우세트 등 프리미엄 세트 물량도 두 배 늘렸다. 과일인 사전비축과 산지 선점으로 시세 대비 10~20%가량 싸게 판매하고, 가격을 30% 낮춘 사전예약 전용상품도 별도로 판매한다.

홈플러스 물티슈 200만개 팔려

홈플러스는 자체브랜드 ‘시그니처 물티슈’가 출시 59일 만에 누적판매량 200만개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9월 26일 출시된 시그니처 물티슈는 지난 달 24일 판매량 200만개를 돌파했고 3일까지 238만개가 판매됐다. 2.5초당 1개, 1분에 24개꼴로 팔린 셈이다. 시그니처 물티슈의 인기에 힘입어 홈플러스의 전체 물티슈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0% 신장했다. 홈플러스는 앞으로도 다양한 자체브랜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인터넷 대상 개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혁신 인터넷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인터넷 산업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제14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 기술 혁신’,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사회공헌’ 등 3개 부문에서 총 10개 단체에 상을 수여했다. 국내 최초로 주7일 새벽배송을 시작한 ‘쥬얼리’가 대통령상을, ‘핑크퐁 아기상어’ 등 4천여명 영상 콘텐츠를 제작·서비스한 ‘스마트스터디쥬’와 아이돌봄 교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 ‘짜깁각아쥬’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터넷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점하는 인공지능 강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64% “내년 연봉 인상할 것”

사람인, 설문...직원사기 진작 차원

내년 국내 기업의 64%가 직원들의 연봉을 올려줄 것이라 설문조사가 나왔다.

4일 구인구직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483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연봉 인상 계획을 조사한 결과 64%(309개사)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36%(174개사)는 ‘동결하거나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들은 내년 연봉 인상률을 평균 5% 수준으로 전망했다. 응답은 5% 인상이 30.7%로 가장 많았고, 3% (25.2%), 10%(10.7%), 4%(8.4%), 2%(8.1%), 1%(5.2%)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연봉 인상률과 비교해서는 ‘비슷할 것’ (72.2%)이란 의견이 대다수였고 ‘높아질 것’ (13.6%), ‘낮

아질 것’ (12.3%) 등은 10%대였다. 인금을 올리는 이유로는 ‘꾸준하게 연봉 인상을 진행해와서’ (42.4%,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35%), ‘최저임금 인상 폭을 반영하기 위해’ (33.7%), ‘직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14.9%), ‘현재 연봉이 낮은 편이라서’ (14.6%) 등의 순이었다.

반면, 내년 연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기업들은 ‘회사 매출 등 실적 이안 좋아서’ (58%, 복수응답)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으며 ‘재무 상황이 불안정해서’ (39.7%), ‘내년 경기상황이 나빠질 것 같아서’ (35.1%), ‘인건비 절감을 위해’ (19%) 등의 이유를 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고령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림사업과 연계한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했다. /aT 제공

“핸드폰으로 카톡하고 영농일지 쓴당게”

aT, 보성서 고령농업인 모바일 교육

“아따, 이렇게 쉬운 줄 처음 알았구먼, 이제 손주들하고 카톡도 하고 핸드폰으로 영농일지도 쓸 수 있어!” 보성의 농업 교육장을 찾은 조봉훈 어르신(77)이 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고

령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림사업과 연계한 스마트폰 교육을 4일 개최했다.

aT는 휴경시기를 맞은 전남 보성의 키워 생산단지를 찾아 고령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사용법,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농일지 작성법 등을 재미있는 웃음 치료 강의와 연계해 교육했다. 특히 이날 학습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농일지 작성법’은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aT에서 운영 중인 ‘농집’을 통해 일차별 농약사용 내역 등 생산 이력 기록에 활용될 예정이다.

aT 신현근 식품수출이사는 “안전한 수출농산물의 생산을 위해서는 농업현장에서부터 이력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농업인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베트남 하노이서 백두포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백두포럼을 개최한다.

백두포럼에는 한국과 베트남의 중소기업인 등 약 140여명이 참석해 남북경

협,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백두포럼은 2010년 중국 연길을 시작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에서

개최됐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는다.

현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이번 백두포럼에서는 2022년 1,000억 달러를 목표로 양국 교역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한-베트남 간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길용현 기자

전력거래소, ISMS-P 인증 획득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전력거래시스템 및 대표홈페이지 서비스에 대해 에너지 공공기관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행안부·과기부·방통위 3개 부처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로 기존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PIMS)가 지난해 11월부터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ISMS-P 인증을 취득하려면 정보보호 관련 80개, 개인정보보호 관련 22개 보안 요구사항 총 102개 심사기준에 대해

엄격한 평가와 100일간의 보완조치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만 한다.

전력거래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며, 새로운 통합 인증제도의 변화에 맞춰 관련 평가 항목들을 정비·개선하여 에너지 공공기관 최초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력거래시스템 및 대표홈페이지’에 대해 안정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췄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미애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